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8주일 2016.7.31.(다해) 제2009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가향성당 제단 위 십자가(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루카 12,20)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만 달려 있는 듯 탐욕에 사로잡혀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로대!”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제1독서 코헬 1,2;2,21-23

제2독서 콜로 3,1-5,9-11

복음 루카 12,13-21.

입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을 꼭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정영훈 바오로 신부 | 노원본당 주임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및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에 사망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교육 행정가들과 부모들에게 한 말이죠. 학생들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오늘 무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것이 내일 필요가 없는 무엇을 붙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했지만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듯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부유한 사람’은 오늘만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뿐 옆 사람도, 하느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느님께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릅니다.

“예구, 어리석기는! 성당에 다니면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고!” 성모상 주변에 잡초를 뽑고 조용히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나도 어렵고 아픈데 더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분들, 주말에 성당에 살며 하루 종일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리교사들 등등. 이런 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슬기로운 자야!”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느님도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예쁘고 슬기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학교 밖 아이들

“시간의 성(城)”에 갇힌 아이들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 대안교육담당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들 중에는 인근 성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성당 얘기를 하거나 식사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 아이들도 하고 싶은지 성당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주일 성당 미사에 나가게 되었고, 성가연습을 같이 하며 강론하시는 신부님의 질문에 손을 번쩍 들 정도로 성당생활에 꽤 친숙해졌습니다. 지난 성탄 때는 이곳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노래와 율동을 연습하여 성당의 성탄 예술제에 게스트로 참가하기도 해서 많은 교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여타의 청소년들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과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2000년대 미국 정부 교육 보고서에는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뉴런에서 이웃으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머리를 좋게 하는 교육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뜻입니다. 획일적인 입시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런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좌신부로 있을 때 다른 도시에서 “우리들에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히세와 셰익스피어를 만나고 싶어요. 국어·영어·수학이라는 책 표지는 이런 계절에 어울리지 않아요.”라며 유서를 쓰고 자살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는 교육현실이 안타깝지만 합니다.

저는 늘 아이들이 인간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라는 “시간의 성(城)”에 갇혀버린 아이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필문**

학교 밖 청소년·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

문의: 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53)643-7624

후원: 대구은행, 505-10-178097-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꿈뚝자리)



김종헌 신부의 ‘나의 주님, 나의 노래’ 슈베르트의 독일미사곡

김종헌 발다살 신부 | 대구평화방송 사장



『가톨릭 성가』 329번에서 336번까지는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독일 미사곡”(작품번호 782번)이 실려 있습니다. ‘미사시작’, ‘영광송’, ‘복음환호송’, ‘봉헌’, ‘거룩하시도다’, ‘사랑의 성체성가’, ‘하느님의 어린양’과 ‘마침성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분열시대 때에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이전에는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았던 성직자와 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서를 받아들였지만, 독일어 성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반인들도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성서를 읽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교회음악에도 일어났습니다. 슈베르트(1797~1828)가 작곡한 여러 미사곡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독일미사곡”이 그 좋은 예이죠. 고전주의 시대까지는 라틴어로 된 미사통상문을 가사로 미사곡을 작곡할 수 있었지만 슈베르트 시대의 독일 낭만주의시대 예술가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탓으로 뜻도 모르는 라틴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온종일 사용하는 독일어로 성가를 만들어 노래하려 했습니다.

이 독일미사의 8개의 가사는 빈 대학의 물리학 교수 노이만이 미사전례 순서에 따라 만들었지만, 라틴어 가사를 독일어로 옮긴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창작한 것이었습니다.(가사의 내용은 우리 성가집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라틴어를 자국어로 번역해 행하는 미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라틴어 미사 기도문을 독일어로 바꿔 노래하는 관행이 하이든 시대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독일미사곡”이 완성된 1827년에 교구는 이 독일미사의 연주를 허가하긴 했지만 미사 전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 슈베르트 서거 100주년을 맞아 미사 때도 연주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살펴보면 ‘영광송’, ‘복음환호송’,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양’ 등은 현행 미사 기도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새로 준비되는 한국어 성가집에도 미사곡의 8개 성가 중 민요처럼 쉽고 경건한 멜로디를 가진 성가들은 날 곡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아무튼 “독일미사곡”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의 아름다움과 긴 생명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성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헌**

열두 사도 이야기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13)

첫 번째 복음사가, 마태오 사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사도의 명단 가운데서 일곱 번째(마르 3,18; 루카 6,15) 혹은 여덟 번째(마태 10,3; 사도 1,13)로 등장하는 마태오 사도께서는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오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새 이름으로 지어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인께서는 본래 카파르나움의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나를 따라라.”(마태 9,9; 루카 5,27; 마르 2,14)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사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당시 세리들은 침략자인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 중 일부를 착복하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상종하기 꺼려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세리 마태오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마태오 사도께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루카 5,28)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 9,13)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열두 사도의 명단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태오 사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께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때까지 함께 지내시다가 9년 동안 유다 지방에 머물며 전교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오 복

음을 저술하신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자 복음을 저술하여 사도들의 설교로 입교한 신자들의 신앙을 복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후일에는 동방으로 가서 페르시아 또는 그 인근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에티오피아에 묻혔다가 10세기경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로 모셔졌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로 복음을 시작하는데 이에 기인하여 4복음서를 동물로 상징할 때 마태오 복음서는 글 쓰는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 행원, 회계, 세무업자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는 마태오 사도는 장부를 펼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는 하는데 로마의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 있는 열두 사도의 조각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궤**



프랑스 할스 '성 마태오 사도, 17세기 중엽, 캔버스에 오일, 오데사미술관

교구 행사

■ 제2회 한티순교자마을 잔치 미사



사진제공 : 월간 <빛>

한티순교성지 봉사자들과 도움을 주는 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제2회 한티순교자마을 잔치 미사가 7월 23일(토) 오후 5시 한티 피정의 집 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와 장신호(요한보스코) 보좌주교, 교구 사제단의 공동 주례로 봉헌되었다.

피서지에서도 미사드링크요 ! (교구 내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성건본당 ☎ (054)749-8900

성동본당 ☎ (054)776-1841

황성본당 ☎ (054)771-7817

| 구룡포 해수욕장, 대보면 해맞이 광장

구룡포본당 ☎ (054)276-2439

| 망양·봉평·후정 해수욕장

울진본당 ☎ (054)783-2130

북면본당 ☎ (054)783-1965

| 대진·고래불·거무역·대신·장사·남호

해수욕장, 백암 온천

영덕본당 ☎ (054)733-0511

신애공소 ☎ (054)732-3519

후포본당 ☎ (054)788-2157

영해본당 ☎ (054)733-6880

| 울릉도, 독도

도동본당 ☎ (054)791-2047

천부본당 ☎ (054)791-6047

| 직지사(김천)

대신본당 ☎ (054)437-1785

평화본당 ☎ (054)434-1785

| 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흥해본당 ☎ (054)262-2258

| 포항·송도·북부 해수욕장

덕수본당 ☎ (054)246-6311

죽도본당 ☎ (054)273-3441

어리석은 짓은 그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 사 안 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8월 1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3일(수)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8월 6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8월 6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발달 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8월 7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8.7(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8월 예수고난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8.6(토) 15: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현충로역)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형제

문의: 이마리오 신부, (010)7507-6005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8.6(토) 10:00

일정: 10:00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 면담 및 고해성사

버스: 영남대역 4번 출구(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8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8.13(토)~14(일)

주제: 외딴 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편)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천호성지_병인박해 150돌 기념 피정

기간: 9.2(금)~3(토) 14:00

주제: 신앙선조,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강사: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명예소장)

문의: 천호성지피정의집, (063)263-1004

성모님과 함께하는 6일 침묵 치유 피정

기간: 8.7(일)~12(금) / 대상: 누구나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강사: 안토니오 신부 / 피정비: 35만원

주최: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2881-9396 / (010)2281-5689

엘리아와 함께하는 침묵 피정

기간: 8.13(토)~15(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베네딕도영성관 성경 통독 피정

신약(서간편): 8.18(목)~21(일)

히데가르트: 9.24(토)~25(일)

비용: 신약_15만원 / 히데가르트_6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교육 | 모집 | 기타

성경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독서모임

접수: 7.31(일)~8.29(월) / 대상: 전신자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장소: 어버이 성경학교 내 별관(경산)

주최: 포교베네딕도수녀회 / 선착순

문의: 815-1114 / (010)2512-4627

빛떼제기도

일시: 8.13(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제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286-2247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모집(종교무관)

위치: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괴정동)

주최: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문의: (042)534-8876

곽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핵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못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주)김스여행

스페인(산티아고) 5일도보/루르드 14일

- 출발일: 10월17일 ~ 10월30일
- 지도신부님 동행합니다.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7년 15년

척추 · 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대거리 ☎ 053)628-4111

여원소아청소년과

YESWON PEDIATRICS CLINIC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 여지현(프란체스카)

대구 북구 대한남로6길 25, 2F T. 953-0405

소아알레르기호흡기클리닉
소아신경클리닉, 예방접종
영유아접진

자기주도학습전문

방학특강 · 공부방법

UP학습코칭 · 논술

윤 종 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튼튼속내과

건강검진센터, 내과진료
위, 대장 내시경 전문

전문의/원장 박준모

TEL. 053)959-7585

대구시 동구 신암로 80 3층(신암2동 우체국 옆)

전기농산물건조기

제조공장 직접판매

채반10칸, 12칸, 13칸, 14칸, 24칸, 28칸

삼성금산정밀

대표이사 이규현(베드로)

공장 ☎ 053)358-7735

노원대거리에서 조야교방면 도로5분거리

행사 | 모임

관덕정 개관 25주년 기념 그레고리오미사
 일시: 8.13(토) 17:00, 관덕정
 주례사제: 베네딕도회 박대중 신부
 문의: 관덕정, 254-0151
<http://www.daegusaint.org>

성모기사회_클베의 밤에 초대합니다
 일시: 8.13(토) 18:30, 월배성당
 문의: (010)9100-4114

교육 | 모집

소공동체 체험수기 공모
 기간: 7.29(금)~30(금)
 내용: 소공동체 활동에서 체험했던 내용
 제출: 교구 사목국(samok@dgca.or)
 문의: 250-3056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성교육 집중 3일 연수
 기간: 8.23(화)~25(목) 10: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광호 베네딕토 / 마감: 8.19(금)
 문의: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한국잼버리 가톨릭스카우트 현장체험
 기간: 8.3(수)~9(화) 6박 7일
 장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변
 대상: 유·초·중·고등·청소년·학부모
 다음 카페: 가톨릭스카우트 대구
 참조: 한국스카우트연맹 홈페이지

대가대 평생교육원 2016년 2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보건학 개설(안경, 방사선, 물리치료)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마감: 8.26(금)
 개강: 8.29(월) / 신청: 660-5554~7

성지안내봉사교육(한국천주교회사)
 기간: 9.2~12.16(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5만원(교재 및 간식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오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모래놀이 상담 기초과정전문가 과정 모집
 개강: 8.27(토)~28(일)
 장소: 성토마스성당 교육관 205호
 교통편: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강사: 김보애 수녀(한국모래놀이학회)
 문의: (010)5635-1775 / 652-6062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채용 | 안내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어르신들의 편안한 병원생활을 도와주실 간호사선생님을 구합니다.
 문의: 간호과장, (010)9391-2643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주소록은 2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8월 6일 가실본당	8월 13일 도량본당	8월 20일 대안본당	8월 27일 지곡본당
------------	-------------	-------------	-------------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미소나라
 미소나라출장뷔페
 예약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7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박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상정 역임
 대한생물리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이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열 레(유스티노)
 홍 미 최(안젤라)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회화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베로 468 (구)달성군청자리